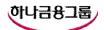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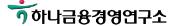
2013년 No.09



하나 행복가이드

국내 노년층의 주택연금 이용현황 및 해결과제 캐나다 사적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Contents

이슈 포커스	국내 노년츙의 주택연금 이용현황 및 해결과제 캐나다 사적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IT업체 과장 A씨, 주택연금 활용으로 노후 준비 가능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채권형 상품중심 구성 필요 12월 주식시장은 선진국 경기 회복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 예상	09
국내외 단신	글로벌 대형 및 공공연금펀드의 자산배분 트렌드 2013년 가계금용 및 복지조사 결과 발표 노인빈곤 해소 위해 기초연금제도 또는 노인공공부조제도 도입 필요	14
상품브리프	노후의료비 중 최대 부담인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장기간병보험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겨울철 건강 관리 - 고혈압	19
하나 뉴스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창립 8주년 기념 외화적립식 예금 판매 등	21
연금 통계		23



국내 노년츙의 주택연금 이용현황 및 해결과제



수석연구원 오 영 선 (ohys@hanafn.com)

"주택연금은 자산구조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70대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 로 즁가하고 있으나 자식을 대상으로 주택을 물려 주고 싶어하는 시니어 세대들의 정서와 주택을 가 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민정서는 주택연 금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주택연 금은 노후 세대들이 풍족한 생활을 위해 누려야 하 는 당당한 권리이자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선 택적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인지시키는 일이 필요 하다 "



퇴시기 이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 원하기 위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행 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제도가 올해로 도입 7년째를 맞이했다. 주택연금은 자산구조가 부동 산에 집중되어 있는 70대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가입 자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올해 8월부터는 주택연 금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50대의 주택연금 사전가입이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신청 건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 근에는 기존 상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되고 다주택자 및 오 피스텔 소유주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계획이 발 표되는 등 주택연금상품은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 영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년 층의 소비활성화 및 생활 안정,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주택연금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해결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누적 가입자수 1만 4천여명. 빠른 속도로 가입자 증가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 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태 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 다. 평생 거주, 평생 연금 지급이 보장되는 특징과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큰 경우 남는 부분이 상 속자에게 돌아가며 그 반대의 경우라도 부족분을 청구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시니어 세대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누적 가입자수는 1만 4천여명으로 아직 노인인구의 소 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건수가 증가 하는 속도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가장 빠른 편이다. 국내 60대 이상 고령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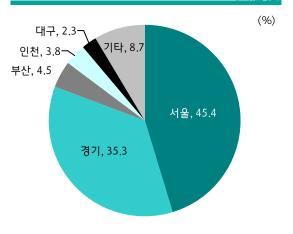
구가 보유한 자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고, 금 융자산은 16.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자산 유동화 가 필요한 노인계층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 다. 최근에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노후생활을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주택연금 가입 고객은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자 연령 평균 72.3세, 평균 주택연금 수령액은 108만원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아직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상황이다. 도입 초기에는 서울 및 인천, 경기 지역 가입자들이 90.4%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 거주자 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으나, 2013년에는 동일 지역 가 입자가 84.5%로 낮아졌고 근래에는 부산, 대전, 울산 등의 도시에서 가입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금 융공사는 지역별 상품 가입률이 크게 다른 현상이 주 택가격과 대체소득 창출수단 여부, 상속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평균 연령 72.3세로, 평균 2억 8.000만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해 평균 108만원(총 수 입 155만원의 70%)의 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들의 근로 · 사업소득은 월평균 6만원으로 일반 노년층의 근로 · 사업소득(월평균 75만원)에 비하여 현

지역별 주택연금 귱급현황(2013년 1~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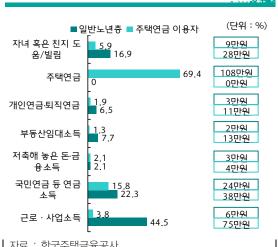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일반 노년층의 61.6% 가 본인 및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직업을 가지 고 경제활동을 하는 반면, 주택연금 이용자의 경우 9.9%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창출 활동이 어려운 계층이 주 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주택연금 이용자 중 혼자 살거나 부부만 거주하는 비율은 83.2%로 조사되어 일반노년층의 동일 조건 비 율 67.7%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실물자산 편중도는 매우 큰 편

한편 주택연금 이용자들은 평균 3억 3천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노년층이 보유한 평균 총자산 3억 1천만원보다 오히려 많은 자산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노년층의 경우 총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1.6%인 반면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경우 이 비중이 92.8%로 더욱 주 택에 편중된 자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주택연금 이용자들이 금융자산을 보유한 비율은 전체 자산의 3.5%(1,200만원)에 불과하여 일반 노년층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연금 이용자의 월평균 수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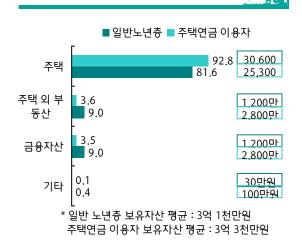


지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녀 대상 상속 의향, 집에 대한 애착이 주택연금 활성화의 방해요인

주택연금 가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 만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식이 풍요로운 생 활을 하기 희망하는 부모 세대의 정서와 집을 가장 중 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민성향은 향후 주택연금 활 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주택연금 수요계층의 약 75%는 자녀에게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노 년층이 본인의 여유로운 생활보다는 자녀에게 금전적 인 지원을 해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택연금 향후 이용 의향 조사에서도 주택연금을 '반드시 이용하겠다' 또는 '이용하겠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5% 미만이며 이 수치가 5년 전과 비교해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은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여전히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겠다' 또 는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0% 가 넘는 수준이고 주택연금의 단점 1순위로 '자녀에 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진다(76.0%)'가 언급되고 있어 서 자녀에 대한 상속의향은 주택연금 이용자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이용자의 보유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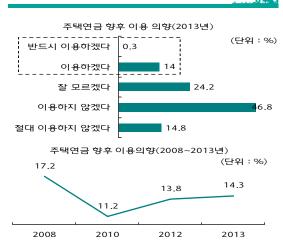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거주 조건이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당 연구소는 주택연금 수요계층이 주택연금 가입을 꺼 리고 있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 난 10월 주택연금 관련 소비자 좌담회를 시행했으며, 실제 주택연금 수요자들인 50대 및 60대 주부들이 상 품 가입과 관련하여 느끼는 실질적인 우려사항을 확인 했다. 좌담회 참석자 대부분 언론이나 지인을 통해 주 택연금의 장점 대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단점(주택 가격의 2%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 부담, 재건축·재 개발시 소유권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 물가상승률 미 반영, 주택가격 상승기에도 동일한 연금지급액 수령)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했다. 이들에게는 거주 주택이 재건축 · 재개발 주택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가입과 관련된 주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60대나 70대에 주택연금을 가입한 이후 100세 가까운 연령대까지 생존한다면 약 20~30년의 기간 동안 재 건축이나 재개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주택 연금 가입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노년기에 전원주택 등 다른 주거형태로 이주하고 싶어도 기존에 수령한 연금 및 보증료를 상환해야 하 고 비싼 초기 가입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부

주택연금 향후 이용 의향 및 추이



지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1

1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생 거주 조건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다행히도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사업 진행 시에도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어 향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요자들도 주택연금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최후의 자산으로 인식. 최대한 유지하고 싶다는 시각 팽배

또한 당 연구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요자 중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없거나 낮은 집단의 비가입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자 정량조사도 실시했다. 주택연금 이용 의향을 10점 척도로 질문한 후 이용의향이 높은 집단(8~10점 응답자)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의 주택연금 비이용 이유를 확인한 결과 집은 최후의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게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택연금을 부채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30% 이상으로 조사되어 채무 발생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주택연금 수요계층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연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높지 않은 이유

주택연금 비이용 이유	비율
집은 최후의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38.5%
주택연금은 부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5%
매년 물가가 상승해도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서	30.2%
주택연금 가입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26.3%
주택가격의 2%에 해당하는 가입비용이 크다고 생각해서	25.3%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서	15.9%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8%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7.5%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건축·리모델링 예정이라서	5.4%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녀들이 용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3.8%
기타	5.1%

1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수령액. 가입 초기 비용. 세금 납부 등 경제적 손실과 관련된 요인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의향이 높지 않다고 응답했다.

주택연금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출상품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노령자들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개념을 낯설게 느끼고 젊은 시절 힘들게 마련한 집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노후 세대들이 풍족한 생활을 위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자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선택적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기피했던 노년층의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회사는 주택연금을 대출상품으로 안내하기보다는 평생 수입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으로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택연금 이용자들이 가입 의사결정을 위해 자녀와 상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에게도 주택연금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익한 상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한 채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소비자들이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주택금융공사 및 주요 상품 판매 채널인 은행이 소비자들의 가입시기 결정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주택연금 수요자들은 본인의 재정상황과 다양한 경기 변수를 고려했을 때 언제 부터 연금 수령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캐나다 사적연금시장의 특징과 시사적



수석연구원 강 미 정 (ashleykang@hanafn.com)

" 캐나다는 소득 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연금 (RRSP) 중심의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 다. 특히 유연적인 제도 운영으로 장기 보유를 유 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연금 관련 상품을 제공 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공 적 · 사적연금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수익원 확보가 시급하다. 보다 강 화된 유인책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다는 선진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 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 나로 노년기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1927년 공적연금을 도입한 이후 1950년대에 현대화된 기업 퇴직연금 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3층(Three Pillars) 연금체계 를 확립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적연금(3층에 해당) 노후소득 보장이 활성화되 어 있으며,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과세이 연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주요한 연금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의 급속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의 틀을 갖추고 있을 뿐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가입률 이 낮고,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미흡해 실질적인 노후소 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우위형 국 가인 캐나다 사적연금 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 고 향후 국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캐나다 연금제도는 3층 체계로 구성

캐나다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 되며, 3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1층에 해 당하는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과 2층의 공 적소득비례 연금제도인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령연금은 캐나다에 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인구에게 제공 되는 국민기초 연금제도이며, 캐나다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한 납입액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국민연 금제도이다. 퀘벡에서는 캐나다연금과 유사한 퀘벡연금 (Quebec Pension Plan: QPP)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층은 자발적 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사적연금으 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Registered Pension Plans: RPP)과 개인의 자발적 저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개별적 으로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으며, 확정급여 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된다. 1957년 도입 된 개인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인형 IRP와 개인연금 을 합친 형태와 유사하며 계좌의 소유자에 따라 개인 RRSP(Individual RRSP), 배우자 RRSP(Spousal RRSP), 단체 RRSP(Group RRSP)로 나뉜다. 개설 금융기관의 역할에 따라서도 계좌가 구분되며, 납입할 수 있는 한도 액은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설정하고 있다.

개인연금(RRSP) 중심의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캐나다는 공사연금 총소득대체율이 70%1)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약 31%2로 사 적연금우위형 국가에 해당된다. 사적연금 중에서도 개 인연금 가입률(2011년 기준35.1%)이 퇴직연금(33.9%) 보다 높아 개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후준비가 활성화 되어 있다.

캐나다의 퇴직자산 규모 (2011년)는 2.4조 달러로 이 중 RPP 자산이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RRSP 등 개인연금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공적

캐나다 노후소득보장체계

			all and the T
구분		제도	주체
1층 공적		OAS (Old Age Security)	정부
연금 2-	2층	CPP (Canada Pension Plan)	Ö T
1174		RPP (Registered Pension Plans)	기업
사적 연금 3·	3층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개인

자료: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of Canad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중 RPP 기준
- 2)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업연금(RPP) 중 DC 형 기준

연금 자산의 경우 도입시에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었으 나, 2000년에 이르러 적립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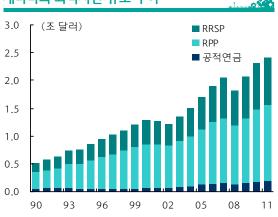
RRP와 RRSP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약 1,200만명 수 준이며, 자산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RPP 자산 은 2011년 전년대비 약 6% 증가한 1.4조 달러를 기록 하였는데, 자산 중 대부분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기금형 연금이 차지하고 있다.

과세이연을 통한 세제혜택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

캐나다 정부는 사적연금을 중산층의 퇴직소득 준비를 위한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과세이연을 통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며 개인들의 자발적인 개인 연금 가입을 촉진시키고 있다.

개인연금에 대한 주요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RRSP 계좌에 납입되는 소득은 해당 연도 소득신고시 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소득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만 71세가 되는 시점에는 계

캐나다의 퇴직자산 규모 추이



│ 주 : 공적연금은 CPP만 포함

자료: Statistics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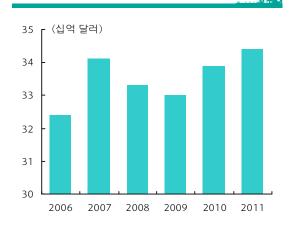
좌에 축적된 자산을 개인연금 저축펀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로 비과세 전환이 가 능하도록 해 가입자들이 납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이연 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 저축펀드의 경우 부분 인출이 가능해 RRSP 계좌에서 전액을 인출할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연적인 제도 운영으로 가입자들의 장기 보유를 유도

정부는 세제혜택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매우 유연적이 다. 투자 기간 중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출시까 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출 시점에 소득세를 과 세하고 있는데 퇴직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자 산을 인출할 경우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도록 해 가 입자들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자가 71세 이전에 계좌에서 자산을 인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사항 등을 정해놓고 있는데 부부이혼과 계좌 소유주 사망, 주택구 입 등이다. 첫 주택 구입의 경우 RRSP에 있는 자산을 대출 형식으로 인출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최대 2만 5천 달러 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인출된

RRSP 납입액 즁가 추이



지료: Statistics Canad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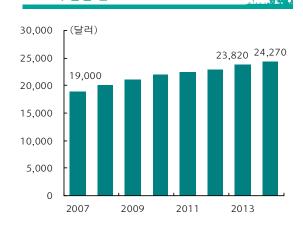
자산을 2년 거치 후 최대 15년 이내에 RRSP 계좌로 회수해야 한다.

다만 과감한 세제지원 혜택 부여로 개인연금은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가 입 대상의 경우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 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RRSP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도 전년도 소득의 18%와 매해 조정되는 한도액 (2013년 기준 23,820달러)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한도 금액은 국세청(CRA)에 세금을 신고한 이후 확인 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한도가 늘어난다. 그리고 개인연금의 납입 금액은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RRSP 한도액에서 RPP에 불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만 큼만 납입할 수 있다.

사적연금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편

캐나다 사적연금 자산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식, 채권 등 수익배당형 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2012년 기 준 사적연금에서 뮤추얼 펀드가 34.6%의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 상품이 각각 24.6%와 27.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RSP의 납입 한도



자료: Statistics Canada

과감한 투자 성향으로 투자수익율은 2009년, 2010년 각각 10.3%, 7.9%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개인연금은 자산운용에 있어 다양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의 폭이 넓은 대신 편입 가능한 펀드 등 투자 대상을 표준화함으로써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틀을 갖추고만 있을 뿐 국민연금의 실질 가입률이 낮고, 사적연금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연금소득세율 하향 조정 및 중도 해지에 대한가산세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금저축제도를 개편하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캐나다를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사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개인연금은 캐나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

국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영국	49.1	18.1
미국	32.8	24.7
캐나다	33.9	35.1
캐나다 독일	33.9 32.2	35.1 29.9

지료: OECD, 2011

1

캐나다는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을 포괄하여 소득목표 및 납입한도를 설정함으로 써 사적연금에서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세제지원 방 식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연도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 고 있으나, 소득공제 상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납입 한도 미사용분에 대한 이월, 중도인출 시 과세 예 외항목 설정 등 유연적인 제도 운영으로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식 및 펀드 등 적극적인 운용 방식을 통한 높은 수익률도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금 참여를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외 주요국의 개인/퇴직연 금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보다 낮은 수준인 400만원의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12%)을 주고 있으며, 개인연금과 추가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 공제 상환과 납입기간에 대한 한계가 엄격해 개인연금 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특히 국공채 위주의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 은 점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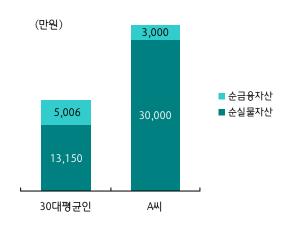
우리나라도 개인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제혜택 이외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등 정부의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 확대로 자발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시키고 가입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연금 중도 해지 시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 예외 항목을 설정하는 등 유연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연금 가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성장·저금리 기조 지속, 기대수명 등으로 연금자산의 운용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원리금보장상품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한수익률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T업체 과장 A씨, 주택연금 활용으로 노후 준비 가능

IT업체 과장 A씨(38세)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은퇴 후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월 약 3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A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108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 각하고 있다. 수령한 퇴직금을 60세부터 85세까지 연 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월 45.9만원으 로 환산된다. 이때 할인율은 60세를 4%로 설정하고 매 년 0.5%씩 차감하여 85세에 2%가 되는 것으로 가정 했다. 개인연금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보 험이 있으며, 퇴직 후 매월 70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또한 A씨는 현재 3억원 대의 아파트를 순실물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은퇴 직후 이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60세에 종신 정액형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1억원 당 약 23만원의 주택연금 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하

30대 평균인과 A씨의 재무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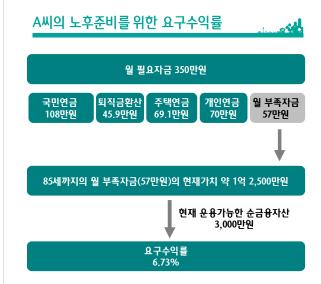


지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면 A씨는 매월 69.1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국민연금과 월 환산한 퇴직금 및 개인연금저축, 주택연 금을 필요 생활자금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 금은 57만원이 예상된다. 이를 85세까지 필요한 금액 을 은퇴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약 1억 2,500만 원 정도이며, 현 시점에서 보유 중인 순금융자산 3,000 만원을 운용하여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6.73%의 수익률이 요구된다.

A씨의 경우 30대 평균인과 비교해 순금융자산은 다소 부족하나 순실물자산이 많은 편으로 전체 자산 규모로 보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대적으로 많 은 실물자산을 주택연금의 형태로 노후생활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투자자금으로 안정적인 운용만 이루어지면 풍족한 노 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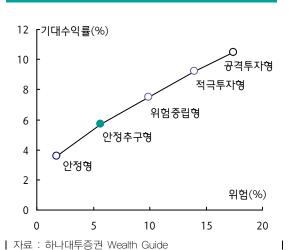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공격투자 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 로 분류된다. IT업체 과장 A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 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 요한 요구수익률은 6.73%로 계산되었는데 이를 고려 하면 A씨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12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면 투자비중은 국내주식형 10.0%, 중위험형 17.5% , ELS/ELD에 17.5%, 국내외 채권형 27.5%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월과 동일한 전략이다.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양 적완화 지속 지지 발언 등으로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 되며 글로벌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지표가 개선됨과 더불어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산별 투자비중은 전월과 동일 하게 유지하되 선진국 중심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안청추구형 전략은 상대적으로 주식형보다 채권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美 양적 완화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리도 박스권 상단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장단기 스프레드도 횡보 흐름이 예상되는 바 금리에 민감한 하이일드 채권 및 미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3분기 기업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의 초입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벨류에이션 회복이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평가된 배당주에 대한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중위험형 전략과 국내외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등의 대안형 투자의 비중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بالمهر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1 100E 1E 11E 10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_	10.0	12.5	32,5	45.0	
해외주식	_	_	15.0	27.0	27.5	
원자재	_	-	_	_	_	
중위험형	15.0	17.5	17.5	9.5	9.5	
ELS/ELD	10.0	17.5	17.5	10.0	10.0	
국내채권	40.0	22,5	12,5	5.0	2,5	
해외채권	_	5.0	10.0	7.5	2,5	
현금성	35.0	27.5	15.0	8,5	3.0	

│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노후 재무설계 행복가이드

투자상품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채권형 상품중심 구성 필요

12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전월과 동일하게 국내 외 채권형 비중을 27.5% 이상 유지하기로 한다.

포트폴리오의 22.5%를 투자하는 국내채권은 기업신용 분석 및 저평가 종목 발굴을 통해 확정금리형 상품에 비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고, 회사채 운용경험을 바탕으 로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온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 권)에 투자하며, 5%를 투자하는 해외채권은 미국 하이 일드채권 및 미달러표시 채권을 중심으로 고수익, 고위 험 채권에 투자하되 짧은 듀레이션 전략으로 낮은 변 동성을 추구하는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 A에 투자 한다.

포트폴리오의 17.5%를 투자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롱 숏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채권금리+α 를 추구하며,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이다스거북이50자(주식혼합) A에 투자한다. 구조화상품은 주가가 일정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조건 이 충족되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ELS상품에 투자하 며 투자비중은 17.5%이다.

국내주식형의 경우 인덱스형, 중소형주형, 성장형, 가 치형으로 분류되나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성장형과 가치형에만 투자한다. 성장형 포트폴리오 위주로 하되, 가치형 투자를 통해 저평가 종목 발굴 및 주가상승을 추구하는 성장가치형 펀드인 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 (주식) A에 5%, 대형주 중심으로 업종 내 베스트 종목 에 투자하고 리서치에 기반한 기업 펀더멘털 변화 분 석을 통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트러스톤칭기스칸(주 식)A에 5%를 투자하였다.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인 만 큼 국내주식형의 투자비중은 10%에 불과하며 해외주 식형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MMF/MMDA/MMT 의 비중을 27.5%로 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하 였다. 한편 A씨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중이며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있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투자 성	품 포트플	리오			alama W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ュ	국내주식	일반주식형	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주식) A	하나UBS	5%
금 융 자	최네 <u>구</u> 국	일반주식형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 A	트러스톤자산운용	5%
자 산	대안	중위험형	마이다스거북이50자(주식혼합) A	마이다스	15%
	416	구조화	ELS(ELF/ELT)	_	17.5%
포	국내채권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흥국자산운용	22.5%
트 폴 리	해외채권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 A	JP모간	7.5%
리	현금성		MMF/MMDA/MMT	_	27.5%
	합계				100%
연금저축보험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 중					

Ⅰ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하나대투증권

12월 주식시장은 선진국 경기 회복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 예상

호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과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양적완화 축소 이수가 다시 부각되었다. 그러나 옐런 연준의장 지명자의 양적완화 유지 지지 발언으로 축소 이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했다. 그러나 이머징시장의 경우 주식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펀더멘털 개선세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다. 반면 선진국의경우 미국, 유럽의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상승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12월 국내 주식시장은 3분기 기업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초입인 점과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경기선행지수의 양호한 개선으로 밸류에이션 회복이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회복 초기 밸류에이션 상승이 뚜렷했던 IT, 자동차, 은행 업종의 상승이 예상되며, 최근 미국 경기반등이 자본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 업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중시 선행 주가 수익률과 선행지수 추이 🎿



채권시장은 금리 박스권 상단에 등락 예상

美 고용지표 호재 등으로 인해 내년 3월로 예상된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글로벌 금리는 상승하였다. 달러화도 다시 강세를 보인 반면, 신흥국 금리는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1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고, 12월에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측은 현재의 경기개선이 지속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GDP갭 마이너스가 소멸될 수 있음을 이유로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유지하였다. 또한 옐런 후임 연준 의장 지명자의양적완화 유지 지지 발언으로 테이퍼링 우려는 다시줄어들며, 금리 상승 압력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지표의 개선세는 금리 하락을 제한하여 12월 FOMC까지 금리는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동양 사태 이후 크레딧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스프레드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크레딧 스프레드 및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 주 :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10년─국고채 3년 크레딧스프레드 : 회사채AA 3년 ─ 국고채 3년

자료 : 민평 3사, 하나대투증권

노후 재무설계 행복가이드

해외시장은 美·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세 지속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

미국은 소비선행지표가 다소 둔화를 보이면서 연말 소 비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필수소비재와 경기소비재가 주로 소비되는 연말소비의 특성상 가계 의 재정상태에 따라 소비여력이 결정되는데, 2008년 이후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과 주식의 상승률을 볼 때 연말소 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4분기 GDP 성장률 개선도 기대된다. 유럽은 완만한 경기 회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유로존 경제성장률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경기기대지수가 기준선 상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신규 주수와 소비심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점 을 볼 때 12월 유로존 경기기대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 제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의 선행지표인 기계류 수주 가 상승 전환한데 이어 소비자기대지수 또한 동반 상 승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美 연말소비와 GDP 간 관계

(%, SAAR) (%, YoY) - GDP 연말 소비시즌 매출(우) 8 6 3.9(E) 4 2 2.6(E) 0 (2) 연말쇼핑시즌 매출 증가는 4Q 미글 (4)GDP의 견고한 흐름을 시사 (6)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주 : 13.2H 미국 GDP는 3Q 속보치와 하나대투증권의 전 망치를 감안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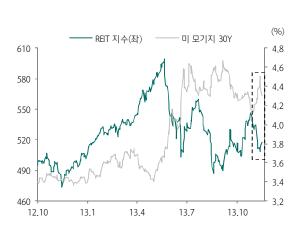
자료: NRF,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중국은 18차 3중전회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체제 전환을 강조하였다. 다만 정 권 초기인 만큼 경제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보다는 정권 안정화를 우선으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타 신흥국 대비 환율 절하는 제한적이었으나 물가 우려를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브라질은 테이퍼링 재부각 으로 금리 상승 및 환율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은 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펀더멘털 우려는 감소할 것 으로 보인다.

리츠시장은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움직임에 연동될 전망

리츠 가격은 셧다운 사태에도 미 고용이 호조를 보이 자 테이퍼링 가능성 재부각으로 상승한 미 금리에 연 동되며 하락하였다, 이후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양 적 완화 유지성 발언으로 금리가 하락하자 반등하였다. 부동산 지표 조정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12월 FOMC까 지 리츠 가격은 금리에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리츠 및 美 모기지 가격 추이



지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1

국내외 단신 행복가이드

66

"대형연금편드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인 프라투자를 포함한 대안투자,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유하는 추세"

OECD는 최근 글로벌 대형연금펀드(large pension funds)와 공공연금펀드(public pension reserves funds)의 자산배분 등 투자활동에 대한 서베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서베이는 DB(defined benefit)와 DC(defined contribution)형 대형연금펀드 56개와 공공연금펀드 30개 등 총 86개 글로벌 연금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연금펀드들은 35개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규모로는 전세계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1/3 이상을 가지고 있다.

연금펀드들은 최근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만 투자수익 제고에 대한 압력은 전통적인 투자대상 이외 의 대상을 찾도록 요구 받고 있다. 선진국 경제의 더딘 회복과 미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이 머징 경제는 투자자들의 투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연금펀드들의 자산배분은 투자기회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연금플랜의 종류, 그 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내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 을 뿐만 아니라 금리의 하락, 신용 및 유동성 스프레드 갭의 축소 등도 투자결정시 영향을 받는다. 더 나아가 각 나라별로 다양한 투자, 청산 등과 관련한 규제사항 도 연금투자자들의 자산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연금펀드의 2012년 자산배분 서베이를 보면 총자산의 55.6%를 채권형 상품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28.1%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16.3%는 대안투자를 하고 있었다. 채권 및 현금투 자의 경우는 2010년 53,4%에서 56.1%로 증가하였고. 대안투자 또한 2010년 14.4%에서 15.6%로 투자비중 이 증가하였다. 채권 및 현금의 경우는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펀드들이 투자비중이 높았다. 대안투자 의 경우는 10개 펀드의 총투자가 대안투자 총자산의 3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의 OYAK, 포르 투갈의 CGD PENSEOS, 캐나다의 OMERS가 각각 총 자산의 51%, 44%, 40%를 대안투자에 배분하고 있었 다. 반면 주식의 비중은 2010년 32,2%에서 28,3%로 감소하였다.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들은 주로 미국 , 호주, 영국,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해외투자는 총자산의 39.5%가 투자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과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펀드들이 대체로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반 면 남아프리카 등은 자국내 투자 비중이 높았다. 해외 투자의 경우는 자국시장이 작은 나라의 경우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투자정책 결과에 기인하고 있었다.

공공연금펀드의 자산배분은 대형연금펀드와 마찬가지로 채권 및 현금의 투자비중이 6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어서 주식투자 비중이 27.3%로 높았고, 대안투자는 12.5%의 수준을 보였다. 2010년 대비 채권 및 현금투자 비중은 63.5%에서 63.1%로소폭 감소하였지만 포르투갈의 펀드들은 위험회피 성향을 보이며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미국, 벨기에의 펀드는 자국 채권에 100%를 투자하고 있었고, 캐나다, 호주 펀드들은 채권 및 현금의 투자비중이 35%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식의 투자비중은 2010년 26.6%에서 25.2%로 낮아 졌다. 반면 대안투자의 비중은 동기간 동안 9.9%에서 11.7%로 상승하였다. 특히 호주의 펀드는 총자산의 36%까지 대안투자에 투자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펀드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칠레의 경우는 100%, 캐나다는 60%이상을 해외에 투 자하고 있었다.

한편 대안투자의 증가에 따라 인프라투자가 연금펀드 들의 투자 대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 에 대한 접근은 연금펀드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접 근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큰 대형펀드는 인프 라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직접투자나 전략적 제휴 투자를 선호하였다. 중형펀드 는 인프라 펀드를 통한 투자를 선호하였고, 소형펀드들 은 인프라투자에 대한 목표 자산배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SPV 등의 지분이나 채권의 인수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트렌드는 청정기술, 태양이 나 풍력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서베이 대상 69개 펀드들은 비상장 주식 및 채권형태로 2012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72.1십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는 전체자산의 0.9% 수준의 규모이다. 그 중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33개 펀 드는 총자산의 3%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2011년 대비 16.5%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것 중 38%는 비상장인프라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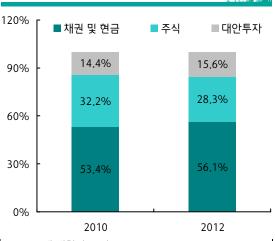
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몇몇 대규모 펀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에 대한 채권 등의 투자 는 2012년 전체자산의 0.4%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아르헨티나 펀드는 전체자산의 13%까 지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고, 61%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나 공동 투자

이상에서 글로벌 연금펀드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인프라투자를 포함한 대안투자, 해외투자 등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대표 적인 연금펀드인 국민연금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대안투자 8.4%, 해외투자에 16.3%의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 글로벌 연금펀드와 비교해서는 아직 대안투자, 해외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향 후 국내 연금펀드들도 저금리 환경의 도래. 협소한 국 내 시장 등을 극복하고 적절한 위험분산과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안투자 등과 관련한 투자기법 및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nual Survey of Large Pension Funds and Public Pension Reserve Funds," OECD, 20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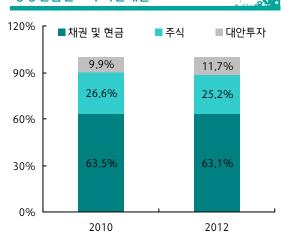
대형연금펀드의 자산배분



주 : 46개 대형펀드 기준

자료: OECD

공공연금펀드의 자산배분



Ⅰ 주: 17개 공공연금펀드 기준

자료: OFCD

국내외 단신 행복가이드

66

2013년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결과 발표

"은퇴연령츙 가구의 빈곤율은 전년대비 소 폭 개선되었으나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 곤율은 오히려 더 악화"

통계청은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11월 19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50.2%로 전년동기 51.1%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3.5% 개선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효과에 기인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가구의 빈곤율 및 빈곤갭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리고 은퇴연령층 가구중 취업자가 있는 경우의 빈곤율은 32.3%로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75.1%보다 빈곤율이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대비 취업자가 있는 가구는 빈곤율이 소폭 개선된 반면 취업자가 없는 가구는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빈곤율에서는 50대의 경우 전년동기 12.9%보다 악화된 13.1%을 기록하였다. 반면 60대와 70대는 각각 28.3%, 53.9%로 50대보다는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모두 개선되었는데 60대의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비율은 2013년 3월말 기준 14.0%로 2012년에 비하여 낮아졌다. 반면 실제 은퇴연령은 0.3세 빨라지며 61.3세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은퇴가구들의 생활비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를 통한 조달이 31.7%로 가장 높고, 공적연금이나 개인저축을 통한 조달은 각각 23.5%, 10.2%에 불과하였다. 또한 생활비 충당 정도도 '부족하다'이상이 61.9%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소폭 개선되었지만 은퇴가구들의 생활비 충당 및 마련은 개 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은퇴가구중 재취업 의사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서는 적극적인 취업기회의 제공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70세 이상 등 취업이 어려워 빈곤율이 높은 가구에 대 해서는 기초연금 등에 의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2013.11)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마련 방법



	은퇴가구	실제은퇴		생활	비 충당 정	!도			생활비 🏻	l련 방법	
구분	비율	연령	충분히 여유있다	여유있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 족하다	가족,친지 등 의 용돈	공적연금	기존의 개인 저축액	기타
2012년	15.1	61.6	2.0	4.7	31.9	38.5	22.9	32.1	23.5	11.8	32.6
2013년	14.0	61.3	1.7	6.5	30.0	40.1	21.8	31.7	23.5	10.2	34.6
전년차	-1.1	-0.3	-0.4	1.7	-1.9	1.6	-1.1	-0.4	0.0	-1.6	2.0

자료 : 통계청

¹⁾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빈곤갭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선(중위소득 50%, 1,068만원)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687만원) 차이의 정도

66

노인빈곤 해소 위해 기초연금제도 또는 노인광광부조제도 도입 필요 **

"노인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후최 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사회 안 전망의 체계적인 구축 등의 노력이 병행 되어야"

지난 10월 11일 2013년 사회정책연합 공동 학술대회에서 "노인빈곤 해소방안" ¹⁾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노인빈곤 해소 방안으로 기초연금제도 또는 노인공공부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의 목표는 소득보장과 기본보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득보장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 흐름을 평균화하여 은퇴 후에도 근로활동기에 연계된 소득대체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보장은 은퇴노인들이 기초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및 지원으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이 있고, 사적 방식으로는 연금의 2층과 3층을 이루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더불어 주택연금 등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득보장기능과 기본보장 기능이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구축미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은 9.18%, 노령부문지출비율은 2.10%로 OECD 회원국 평균 19.2%, 6.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0년 OECD 회원국 평균 총인구 중 노인인구비율이 14.7%일 때 GDP대비 공적연금 비율이 9.3% 수준이었으나 국내는 노인인구비율이 10.9%임에도 GDP대비 공적연금 비율(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은 0.9% 수준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에서 연금 비수급 자가 노인의 68.5%이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50.2%에 이르는 등 노인인구의 빈곤이 사회적인 이슈 가 되고 있다.

한편 OECD 선진국가들은 기본보장을 위한 소득재분 배 성격의 연금을 자원조사형 연금, 기초연금제도, 최 저연금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이 충분치 못한 노인들에게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일반 공공부조를 제공하고 있어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로는 4개의 종류가 있다. 국내의 경우는 노후최저소득보장 대안 모델로 기초노령연금의 유지 또는 축소조정, 기초연금제도도입,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 노인 공공부조제도의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노인빈곤 감축과 복리후생 증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노후최저소득보장방안으로 기초연금모델과 노인공공부조제도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기초연금모델은 보편적 또는 선별적 기초연금을 적정한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소요 재정액이 큼에도 불구 노인빈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인공공부조제도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흡수 통합을 모두 전제하면서 현재의 일반 공공부조제도의 틀을 유 지하는 경로부조제도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 의무자기준의 원칙적 폐지 등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후 생활보장제도가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제시된 노인빈 곤 해소방안 만으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제시된 노인빈곤 해소방안과 더 불어 저임의 고령자들이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의 조성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사회 안전 망의 체계적인 구축이 요구된다.

("노인빈곤 해소방안", 2013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2013,10)

장기간병보험 노후 의료비 중 최대 부담인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상품

간병부담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

장기간병(Long Term Care)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간병 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대표적인 고령자 대상 금융 상품이다.

장기간병보험의 보장 대상은 크게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중증 치매상태로 구분되는데 일상생활장해상태는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등)을 사용해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은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스스로 하지 못하면 해당된다. 한편 중증 치매상태는 보장개시일(2년) 이후에 치매로 진단받고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서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란 CDR¹⁾ 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기간병보험은 치매를 무조건 보 장해주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경증의 치매는 보 장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치매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장해 또한 보장해주기 때 문에 오히려 노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상품 출시될 전망

최근 5년간 치매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90만 명에 이르며 2050년에는 2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장기간병보험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고령화의 급진과 핵가족화라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장기간병보험의 가입이 활성화된 선진국에서처럼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간병 위험에 대비하고자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발표된 금융비전에 따르면 향후에는 현금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 외에도 호스피스, 간병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간병보험도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보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요 간병보험 출시 현황



생명보험사	상품명	기입기능 최고나이	최대보장기간	최대보장금액
현대해상	100세시대 간병보험	70세	100세	1억2400만원
동부화재	가족사랑 간병보험	70세	100세	1억5000만원
한화손해보험	한화 명품 간병보험	65세	100세	1억5000만원
LIG손해보험	LIG 110 LTC간병보험	70세	110세	1억7800만원
롯데손해보험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	70세	100세	2억원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100세간병보험	70세	1000세	1억1000만원

^{|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척도는 치매임상평가척도로서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및 문제해결, 사회활동, 가정생활과 취미, 자기관리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치매 정도를 평가

겨울철 건강 관리 - 고혈압

고혈압은 최근 중·장년충에서 급증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과 뇌졸증(중품)등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4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30대부터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 60대에 40% 이상 발생한다.

고혈압은 대부분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혈압은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힘을 말하며, 수축기 혈압(최고혈압)과 확장기 혈압(최저혈압)으로 나뉜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 (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 고혈압의 90~95% 정도는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않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이다.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심박출량(심장이한번 수축할 때마다 뿜어대는 혈액량)의 증가나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고혈압

고혈압의 단계

		A 4 2 10 4 10 W
혈압의 분류	수축기 혈압 (mmHg)	이완기 혈압 (mmHg)
정상	120미만	80미만
고혈압 전단계	120~139	80~89
17	140~159	90~99
27	160 이상	100 이상

자료 : 국민고혈압사업단

과 관련된 위험인자로는 음주, 흡연, 고령, 운동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있다.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서 부모 모두가 고혈압 환자인 경우는 자녀의 80%가 향 후 고혈압 환자가 될수 있으며, 부모 한쪽이 고혈압 환자이면 자녀의 25~50%가고혈압 환자가 될 수 있다. 고혈압의 5~10% 정도는 신장 이상, 혈관 이상, 부신 질환, 갑상선 질환 등으로혈압이 높아지는 이차성 고혈압이다. 이차성 고혈압의 경우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하면 혈압이 정상이 된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다 심각

한 합병증이 생겨 고혈압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2년 에 한 번 이상 혈압을 측정하고,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선 적어도 두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높은 혈압)이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낮은 혈압)은 80mmHg 미만인 경우이다. 수축기 혈압이 120~139mmHg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89mmHg이면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된다. 고혈압 전단계에만 해당되고 당뇨병, 만성 신질환, 심혈

생활습관 개선의 혈압 강하 효과

개선법	권고사항	수축기 혈압의 감소범위
체중 감량	이상적인 체중유지 (체질량지수[몸무게kg/(키 m) ²]18.5~24.9)	5~20mmHg/ 10kg 체중감소
건강 식사법	포화지방산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 저지방 유제품 섭 취를 늘림	$8\sim$ 14mmHg
저염식	하루 6g이하의 염분 섭취	$2\sim$ 8mmHg
운동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등 유산소 운동	4∼9mmHg
절주	하루 30ml 이하의 알코올 섭취 (여성의 경우 15ml 이하)	2∼4mmHg

자료 : 서울대학교병원

관계 질환이 없다면 금연, 적정체중 유지, 염분섭취 제한, 과도한 음주습관 자제, 운동 등의 비약물 요법을 통해 정상범위까지 낮출 수 있다.

혈압도 계절을 탄다?

혈압은 여름철이 되면 떨어졌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이후 급상승한다. 기온이 내려가면 땀을 적게 흘리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여름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7mmHg, 이완기 혈압이 3mmHg 정도 올라가게 된다. 특히 정상인보다 고혈압 환자, 또 고령자일수록 실내외 기온 차에 따른 혈압의 변화가 더 심하다. 또한 기온 하락시 혈액이 진해지고 지방 함량이 높아져, 혈압 상승과 더불어 동맥경화증 등 합병증도 더 자주 발생한다. 겨울철 아침에는 혈관수축이 활발해져 혈압이 상승하는데, 여기에 차가운바깥 날씨를 만나면 심장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 외출시 옷을 충분히 갖춰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도 중요하다.

혈압을 낮추기 위한 생활 습관

1.적당한 몸무게 유지 :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5Kg정도 줄이면 수축기 혈압을 10mmHg, 이완기 혈압을

소금 1g에 해당하는 염분량

		A AAAA MAAAA
식품명	중량	눈어림치
소금	1	1/3 작은 술
진간장	5	1 작은 술
된장	10	1/2 큰 술
고추장	10	1/2 큰 술
마요네즈	40	3 큰 술
토마토케첩	30	2 큰 술
마가린/버터	30	2와 1/2 큰 술

자료 : 국민고혈압사업단

5mmHg 정도 떨어뜨릴 수 있고, 고혈압 약제에 대한 효과도 증가한다.

2.금연과 절주: 담배는 직접 혈압을 올리지는 않지만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음주시 혈관이 수 축되어 혈압이 상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소금 섭취량 감소 :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혈압 상승의 주원인이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1일 나트륨 권고 기준은 5g이나, 2011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섭취한 소금은 약 12g으로 2배 이상 높다. 주요 나트륨 섭취 음식은 김치류, 찌개류, 면류 등이다.

4.정기적인 운동의 습관화 : 걷기,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4일, 1회 운동시마다 30~45분씩 하는 것이 좋다. 수영도 좋지만 수영 후에 반드시 몸과 머리를 완전히 말려서 따듯하게 한 후 밖으로 나와야 한다.

5.적절한 칼륨 섭취: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채소와 과일은 아욱, 부추,시금치, 근대, 토마토, 키위, 참외 등이 있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생물다자만)

칼륨이 풍부한 식품

분류	식품명		
어육류	돼지고기, 정어리, 연어, 고등어, 조개류		
전분류	고구마		
과일류	딸기, 바나나, 오렌지, 메론, 건포도, 밀감		
채소류	시금치, 호박, 우엉, 버섯, 토마토 (주스에는 나트륨 다량 함유)		
유제품	우유, 치즈(특히, 가공 치즈)		
기타	땅콩, 잣		

자료 :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창립 8주년 기념 외화적립식 예금 판매

하나은행은 그룹 창립 8주년을 맞아 환율, 금리, 수수료 등을 우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할 수 있는 외화예금상품 2가지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으로는 유학,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고객 대상 '하나 모아드림 적립식 외화예금'과 기업 고객을 위한 '하나Wise—FX 적립식외화예금'이 있다.



외환은행, '달러페이(DollarPay) 카드' 출시

외환은행은 지난 12월 2일 국내에서 최초로 해외 카드 사용대금을 미화로 바로 결제하는 '외환 달러페이 카 드'를 출시했다. 동 상품은 고객이 해외에서 신용카 드 사용 시 발생하는 미화와 원화간 환산 과정을 생략 하고 바로 미화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약 1% 정도의 수 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 '하나금융플라자 2기' 출범

하나은행은 지난 11월 29일 하나희망금융플라자 2기를 출범하고 전국 5개 도시에 개설된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 서민재무상담자를 통한 서민상담 활동을 개시했다. 또한 목포·대구·천안·부천·의정부 등의 지역에도 추가 신설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1:1 맞춤형 재무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서울시와 함께 '명동관광정보센터' 개관

외환은행은 본점 별관 1층에 '명동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고 서울시 관광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동센터는 관광객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스탑서비스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토탈서비스를 기본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축제 연계 등을 통해 명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하나대투증권, 링킹더월드와 기부금 조성 업무협약 체결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11월 15일 구호단체 링킹더월드 와 하나대투 기부서비스를 통해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을 통해 링킹더월드에 대한 지원과 함께 후원하는 고객의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상품보수 및 수수료의 일부를 고객 명의로 링킹더월드에 기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SK카드, '메가 더 드림 모바일 체크카드' 출시

하나SK카드는 하나은행과 제휴를 맺고 모바일 전용체크카드 '하나나 메가 더 드림 모바일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3개월간 추가 캐쉬백 혜택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한다. 하나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하나N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에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다.



하나생명, '(무)하나아이사랑어린이보험' 출시

하나생명은 지난 11월 4일 '(무)하나아이사랑어린이 보험'을 출시했다. 동 상품은 어린이·청소년 질환을 세부화해 입원, 수술, 통원 등을 집중 보장하며, 자녀 성장기에 필요한 영어캠프자금, 대입원서자금, 배낭여 행자금, 취업지원 자금 등 각 연령대마다 가입금액의 5~10%내에서 중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SK카드, '연말연시 스마트 쇼핑 이벤트' 실시

하나SK카드는 12월 4일부터 고객들의 알뜰한 소비를 위해 '연말연시 스마트쇼핑 이벤트'를 진행한다. 동이벤트는 전국 현대백화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포인트 사용 가능 및 상품권 제공 이벤트를 실시하며,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무이자할부 혜택 및 모바일 쇼핑몰에서 모바일 카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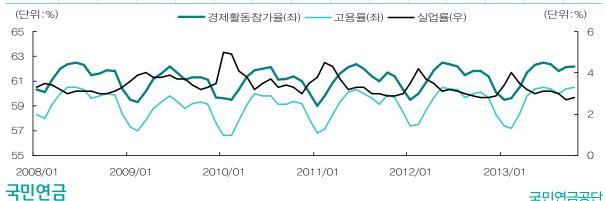


연금통계 행복가이드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10	61.5	7.6	61.6	75.3	79.9	74.4	39.3	59.5	6.9	56.8	73.0	78.3	73.0	38.5
2013.9	62.1	6.8	62.1	75.7	80.1	75.2	41.1	60.4	6.3	57.3	73.8	78.7	74.0	40.6
2013.10	62.2	6.9	61.4	75.6	80.7	75.8	41.4	60.5	6.4	56.6	73.6	79.3	74.6	40.9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건도	중기업시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가입자	가입자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8	20,611,835	1,276,700	11,797,569	8,518,569	1,949,874	6,568,695	188,622	107,075
2013.9	20,680,148	1,282,145	11,838,256	8,544,718	1,956,620	6,588,098	187,500	109,674

2. 2013년 9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개소, 명)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
2010.12	2,016	30,361
2011.12	2,936	41,000
2012.12	5,013	69,006
2013.1~10	4,421	52,769
2013.9	341	3,864
2013.10	553	6,128

2. 2013년 10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2,184	86,911
신한은행	883	37,726
우리은행	780	29,033
하나은행	644	20,190
농협	808	20,916
기타	829	17,618
합계	6128	212,395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기타

■신한 ■우리 ■하나

1. 2013년 9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ㄱㅂ		근로	2자		사업자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527,540	5,091,089	1,324,333	84,837	1,276,455	84,139	104,756	46,512		
생명보험	3,025,356	2,726,947	181,750	3,531	218,594	74,035	17,105	1,792		
손해보험	1,044,940	1,824	55,566	271	57,247	1,926	18,000	230		
증권	2,575,067	2,330,760	134,841	392	118,730	2,946	6,480	242		
근로공단	93,696	_	91,356	470	24,881	_	24,655	226		

■국민

■농협

■신한

■기타

■우리 ■하나

■국민

■농협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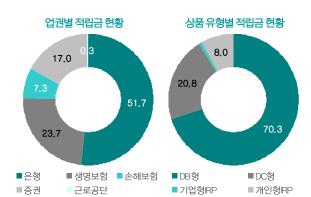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딘	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E	난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下正	급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2013.6	226,994	73,301	32.3	5,300	2.3	117,808	51.9	30,585	13.5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연금통계 행복가이드

3. 2013년 9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720,284	506,156	149,601	6,711	57,816
은행	372,649	227,546	98,447	6,484	40,172
생명보험	170,517	142,304	20,409	179	7,625
손해보험	52,507	45,979	4,599	11	1,918
증권	122,488	90,328	24,052	22	8,087
근로공단	2,123	_	2,093	15	8



4. 2013년 9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7 H	DB	형	DC	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겨	(역원, %)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적금		257,463	50.9	90,840	60.7	5,858	87.3	36,375	62.9	390,536	54.2
	금리확정형보험		176,500	34.9	15,241	10.2	130	0.0	7,333	12.7	199,204	27.7
	금리연동형보험		18,279	3.6	4,944	3.3	55	1.9	1,365	2.4	24,643	3.4
위		국채	491	0.1	1,111	0.7	0	0.8	1,497	2.6	3,099	0.4
원리금보장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모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상		원리금보장ELS	36,658	7.2	1,996	1.3	0	0.0	2,072	3.6	40,726	5.7
		RP	8,158	1.6	1,852	1.2	2	0.0	799	1.4	10,810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50	0.1	0	0.0	40	0.1	190	0.0
	기타		0	0.0	1	0.0	0	0.0	5	0.0	7	0.0
	원리	보장금 소계	497,548	98.3	116,135	90.1	6,045	90.1	49,487	85.6	669,216	92.9
	실적배당형 보험		166	0.0	1,536	0.1	9	0.1	352	0.6	2,064	0.3
		주식형	780	0.2	38	0.0	0	0.0	30	0.1	849	0.1
	T.	혼합형	698	0.1	7,968	0.2	14	0.2	1,096	1.9	9,776	1.4
실	십 합	채권형	3,616	0.7	21,515	9.0	607	9.0	3,182	5.5	28,921	4.0
실적배당	집합투자	재간접	80	0.0	317	0.0	0	0.0	37	0.1	434	0.1
당	증권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	기타	1,105	0.2	0	0.0	0	0.0	0	0.0	1,105	0.2
		집합투자증권 소계	6,446	1.3	31,374	9.4	631	9.4	4698	8.1	43,148	6.0
		직접투자	316	0.1	127	0.0	0	0.0	294	0.5	737	0.1
	실	적배당 소계	6,762	1.3	31,501	9.4	631	0.0	4,992	8.6	43,885	6.1
	디	· 기성 자금	1,845	0.4	1,964	0.5	36	0.5	3,338	5.8	7,183	1.0
		총계	506,156	100.0	149,601	100.0	6,711	100.0	57,816	100.0	720,284	100.0

5. 2013년 9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干正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51,39	1 94.3	161,905	94.9	50,834	96.8	102,998	84.1	2,088	98.3
실적배당형	17,5	5 4.7	7,725	4.5	1,339	2.6	17,234	14.1	13	0.6
기타	3,68	4 1.0	887	0.5	334	0.6	2,256	1.8	22	1.1
합계	372,64	9 100.0	170,517	100.0	52,507	100.0	122,488	100.0	2,123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